

2021 경기도 청년연구 공모 결과보고서

경기도 청년창업 지원정책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스타트업

연구책임 | 유지우



경기복지재단
경기청년지원사업단

■ 청년연구공모사업 보고서는 청년들이 청년 관련 현안에 대한 실태와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49 Fax : 070-8220-0200 E-mail : kimjm1785@ggwvf.or.kr

요약

□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 청년창업 정책 현황과 국외 청년 창업 우수정책 사례 및 시사점 파악, 경기도 청년창업지원 사업 수혜자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청년창업가가 겪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도출하여 경기도 청년 창업지원 사업 개선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 연구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경기도 지역 청년의 기술창업을 중심으로 하며, 연구방법은 현황 분석, 사례연구, 설문조사, 인터뷰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경기도를 포함한 국내의 2021년도 청년창업 정책 지원현황을 파악한 후, 경기도 청년창업 정책 지원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창업과정 및 청년 창업정책을 수혜하며 발생한 애로사항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앞서 도출한 애로사항과 해외 청년창업 정책 현황분석 및 성공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경기도 청년창업 지원사업 개선방안을 도출해내었다.

□ 개선방안 및 제언

앞서 진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도출하여 제언하였다.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는 ‘투자유치 기회 확대’, ‘인력확보 인프라 마련’, ‘멘토링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사업비 집행 방식 변경’이 도출됐다.

위 영역에 대한 주요 개선방안으로 ‘투자유치 기회 확대를 위한 민간 투자위주의 스타트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 형성’, ‘인력확보 인프라 마련을 위한 전문 인력 플랫폼 구축’, ‘실제 창업 경험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멘토POOL 마련’, ‘사업비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본 연구에서 제언했다.

목차

I | 서론 / 28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81
- 2. 연구범위 및 주요내용 282

II | 창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 / 283

- 1. 창업의 개념 283
- 2. 청년 창업의 정의 283

III | 국내 청년창업 지원정책 / 285

- 1. 국내 청년창업 지원정책 현황 285
- 2. 경기도 청년창업 지원정책 현황 291
- 3. 경기도 청년창업가 설문조사 및 인터뷰 294
- 4. 국외 청년창업 지원정책 사례 및 시사점 301

IV | 경기도 청년창업 지원정책 개선방안 / 307

- 1. 결론 및 시사점 307
- 2. 개선방안 및 제언 308

| 별첨 / 311

| 참고문헌 / 323

표 차례

〈표 1〉 대표자 연령별 신생기업 생존율	281
〈표 2〉 연도별 창업지원 통합 공고 현황	285
〈표 3〉 2021년 창업지원 통합공고 예산	286
〈표 4〉 창업지원공고 사업유형	287
〈표 5〉 2021년 정부 및 지자체 청년창업 지원사업 현황	287
〈표 6〉 청년창업 지원사업 유형	291
〈표 7〉 경기도 청년창업가 인터뷰 결과	301
〈표 8〉 스타트업 아메리카 정책의 주요내용〉	302
〈표 9〉 독일의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주요내용 〉	303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창업은 시장에 신생기업을 출현시켜 새로운 경제성장, 시장창출, 고용창출, 한계효용 증가 등을 일으키고, 사회혁신 등을 추구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혁신적 가치를 공급하는 유의미한 활동 체계다. 그에 따라 정부에서는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펴고 있으며, 중기부 창업지원 수와 예산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30대 미만 및 30대 창업의 5년 생존율은 각각 21.1%, 30.0%로 전체 평균인 31.2%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더 나아가, 청년 창업은 2년차부터 생존율이 전체 평균 보다 낮으며, 기간이 길어질수록 생존율이 더 낮아지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표 1> 대표자 연령별 신생기업 생존율

(단위: %)

연령별	1년 생존율	2년 생존율	3년 생존율	4년 생존율	5년 생존율	6년 생존율	7년 생존율
전체	63.7	52.8	44.7	36.7	31.2	26.1	22.8
30대 미만	56.8	43.3	33.6	25.7	21.1	16.3	13.3
30대	64.1	51.7	42.8	35.1	30.0	25.2	21.7

자료 : 2019년 기업생멸행정통계, 통계청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창업지원 수가 증가함에도 청년 창업의 생존율은 낮아지는 문제를 인식하여 청년창업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설정하였다.

특히 경기도 지역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파악해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주요내용

본 연구는 국내 청년창업 정책 현황과 국외 청년 창업 우수정책 사례 및 시사점 파악, 경기도 청년창업지원 사업 수혜자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을 통해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사업 개선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범위는 경기도 지역 청년의 기술창업을 중심으로 하며, 연구방법은 현황 분석, 사례연구, 설문조사, 인터뷰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제 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 2장에서는 창업의 개념을 파악하고 본 연구에서 ‘청년 창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 3장에서는 국내 청년창업 지원정책 현황을 서술하였고, 그 중 경기도 청년창업 지원정책은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나아가 경기도 청년사업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하여 실질적으로 창업기업 운영과 창업정책 수혜과정에서 그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서술하였다. 또한, 국외 청년창업 지원정책 현황 및 우수사례와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제 4장은 결론 부분으로 3장에서 도출한 주요 애로사항을 항목별로 나누어 이에 대한 경기도 청년창업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Ⅱ 창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창업의 개념

창업의 사전적 의미는 사업 따위를 처음으로 이루어 시작한다는 뜻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기업가정신과 능력을 갖춘 개인이나 소수의 인원이 내·외 환경으로부터 얻는 사업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 목표를 세워 사업기회에 물적·인적자원을 투입하여 재화의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창업이라고 한다.

창업은 기술창업, 벤처창업, 일반창업으로 나누어지며, 기술창업은 혁신기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참조하여 제품이나 용역을 생산·판매하는 형태의 창업을 의미한다. 벤처창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의하는 벤처기업의 창업을 의미하며, 기술창업과 벤처창업에 속하지 않는 경우 일반창업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창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2. 청년 창업의 정의

청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 청년의 기준은 나라마다 그 기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기준에 따라 그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39세의 남녀 모두를 청년이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청년 창업’이란, 20~39세의 사람이 사업을 이루어 시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Ⅲ 국내 청년창업 지원정책

1. 국내 청년창업 지원정책 현황

2021년 정부에서는 스타트업의 창업 및 지원을 위해 창업지원 통합 공고를 진행하였다. 중앙부처에서는 90개 사업에 대해 1조 4,368 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광역지자체에서도 104개 사업에 대해 811 억 원을 지원하였다.

<표 2> 연도별 창업지원 통합 공고 현황

(단위 : 개, 억 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참여기관	6	7	7	14	16	32
중앙	6	7	7	14	16	15
지자체	-	-	-	-	-	17
대상사업	65	62	60	69	90	194
중앙	65	62	60	69	90	90
지자체	-	-	-	-	-	104
지원예산	5,764	6,157	7,796	11,181	14,517	15,179
중앙	5,764	6,157	7,796	11,181	14,517	14,368
지자체	-	-	-	-	-	811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호

또한, 부처별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이 1조 2,330억 원으로 81.23%를 차지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3.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3.02%)가 그 뒤를 이었다. 광역지자체의 예산은 서울특별시(1.56%), 경기도(1.36%), 대전광역시(0.51%)순으로 나타났다.

<표 3> 2021년 창업지원 통합공고 예산

(단위 : 억 원, %)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기 관	예산	비율	기 관	예산	비율
중소벤처기업부	12,330.1	81.23	서울특별시	237.0	1.56
문화체육관광부	491.6	3.24	경기도	206.4	1.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57.7	3.02	대전광역시	77.6	0.51
고용노동부	298.5	1.97	부산광역시	52.2	0.34
농림축산식품부	161.9	1.06	충청남도	50.4	0.33
특허청	153.2	1.01	울산광역시	42.0	0.28
농촌진흥청	122.0	0.80	경상북도	38.1	0.25
환경부	120.0	0.79	강원도	24.4	0.16
보건복지부	78.0	0.51	전라북도	22.6	0.15
해양수산부	70.6	0.46	대구시	17.5	0.12
교육부	58.1	0.38	경상남도	9.2	0.06
기획재정부	16.3	0.11	세종특별자치시	7.4	0.05
법무부	8.4	0.06	인천광역시	7.3	0.05
기상청	1.6	0.01	제주특별자치도	6.8	0.04
국토교통부	0.7	0.01	전라남도	4.8	0.03
소계 (15개 부처, 90개 사업)	1조 4,368억 원 (94.7%)		광주광역시	4.0	0.03
			충청북도	3.0	0.02
			소계 (17개 시도, 104개 사업)	811억 원 (5.3%)	
32개 기관, 194개 사업, 1조 5179억 원					

자료 : 중소기업부 공고 제2021-2호

창업지원 공고의 사업유형별로는 하단의 [표3]과 같이 사업화(94개), 시설·보육(46개), 멘토링·컨설팅(19개), 창업교육(15개), 행사·네트워크(14개), R&D(6개) 순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예산은 사업화, R&D, 시설·보육, 창업교육, 멘토링·컨설팅, 행사·네트워크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4〉 창업지원공고 사업유형

사업 유형	사업화	시설 ·보육	멘토링 ·컨설팅	창업교육	행사· 네트워크	R&D	총합
개수	94개	46개	19개	15개	14개	6개	194개
비율	48.5%	23.7%	9.8%	7.7%	7.2%	3.1%	100%
예산	8,745	1,080	229	828	90	4,207	15,179
비율	57.6%	7.1%	1.5%	5.5%	0.6%	27.7%	100%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보고자하는 청년창업의 경우, 28개(14.4%)사업만이 해당되었으며, 그 상세 현황은 [표4]와 같다.

〈표 5〉 2021년 정부 및 지자체 청년창업 지원사업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지원내용	지원대상	사업 규모 (억 원)
◇ 사업화					
1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	청년들의 전통문화산업 진입 지원 및 분야 간 융합 촉진	① 창업 사업화 자금 ② 교육·멘토링	전통문화산업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만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기업	25.5
2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사업화 등 창업 전 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하여 성공창업기업 육성	① 청년 기술창업 One-Stop 패키지 지원시스템 운영	만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 기업	968.48
3	창업기업 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	창업 3년 이내의 청년 창업자 에게 세무회계, 기술임치 등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여 사 업 초기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	① 세무회계 및 기술 보호 지원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	173.3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지원내용	지원대상	사업 규모 (억 원)
4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기상기후산업의 전략적 성장을 위해 미래 핵심인재의 참신한 아이템 발굴 및 창업자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① 창업자금 지원 및 전문가 멘토링 ② 창업공간 제공 (희망팀 한정)	만 34세 이하 예비창업자 (1인 또는 2인 이상 팀 단위 구성)	1.6
5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 (넥스트로컬)	지역 탐색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자원연계 아이템 발굴 지원 사업화 단계에서 사업비 지원 뿐 아니라 분야별 교육 컨설팅 및 멘 토링 프로그램 운영	① 사업화 자금 ② 교육·멘토링 등	만19~39세 이하 서울거주 청년, 예비창업자 및 3년 이하 기창업자 대상 우선선발 (10%내외 업력 관계없이 기창업자 선발 예정)	23.0
6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청년창업기업에 맞춤형 사업 화 및 임대료를 지원하여 창업 초기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일자 리 창출	① 임대료 및 사업화 자금 15,000천원 내외 지원(최대 2년)	만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 창업기업대표자 또는 예비창업자	5.24
7	청년소셜벤처 육성사업	실효성 있는 소셜벤처 육성프 로그램 운영을 통해 예비기업 및 초기기업 지원	① 사업화 자금	(예비)초기창업기업, 미취업 청년	8.5
8	업사이클아트 청년창업 프로젝트	바뀌는 자원을 활용하는 업사 이클 분야의 청년창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업사이클 산업생태 계 확대 및 일자리 창출	① 비즈니스 환경구축 지원 ② 제품개발 지원자금 ③ 교육 등	만 39세 이하의 업사이클 청년 창업자로서 '20년 본사업 신규과제 수행자	4.62
9	청년창업 챌린지	인건 내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 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청년 (예 비)창업자를 발굴 및 지원하여, 지역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	① 사업화 지원 ② 액셀러레이팅 ③ 후속화 지원 등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팀) 및 3년 이내 창업자(팀)	0.8
10	경기도 대학생 융합 기술 창업지원	경기도 내 대학(원)생의 우수 창업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창업 지원	① 창업인프라 및 프로그램	경기도 거주 또는 경기도 소재 대학(원) 재학생	5.8
11	기술이전 창업지원	대학연구소 등의 우수기술을 창업아이템과 접목, 사업화하여 기술개발의 시행착오 감소 및 개발인력, 개발비용 절감, 창업 생존율 제고	① 기술이전 창업지원 ② IP기반 청년 창업 지원	도내 7년 이내 (예비)창업기업 20개사/ (예비초기)3년 미만 청년 창업기업 20개사	8.32
12	G-스타트업 예비창업지원사업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 과 창업교육 및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① 사업화 지원 ② 창업 교육·멘토링 ③ 네트워크 등	- 예비창업자 : 신청일 현재 미 창업자로 도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청년(만18~39세 미만) - 기창업자 : 도내에 본점 소재지를 둔 업력 1년 미만 창업기업	12.9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지원내용	지원대상	사업 규모 (억 원)
13	1839 청년창업 프로젝트	지역 공공데이터 활용, 사회현 안 해결 등 청년 주도의 지역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육성하 여 신규 고용수요 창출 및 지 역 생활방식 개선	① 초기사업화 자금 ② 멘토링	만18세~만39세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3년 미만 초기창업자	5.44
14	경북 청년CEO 심화육성 지원사업	시군 청년예비창업 수료자 중 우수 청년창업가에 대한 지속적 관리지원을 통해 지 역의 대표적 청년기업으로 육성	① 사업화 자금 ② 교육·멘토링 등	만39세 이하 3년 이내 창업기업	9.0
15	경북 청년CEO 재도약 지원	재창업의 열의가 있는 청년 창업가에게 재도약의 기회 를 제공하여 지역의 대표적 청년기업으로 육성	① 사업화 자금 ② 교육·멘토링 등	만39세 이하 청년 재창업가	1.0
16	경북청년예비 창업가육성지원	경북 시군 청년예비창업 수료자 중 북부권 11개 시군의 우수 청년창업가를 지속적으로 관리 지원하여 지역의 대표적 청년기 업으로 육성	① 사업화 자금 ② 시장개척, 컨설 팅 등	도내 만 39세 이하 예비청년창업가 또는 창업 1년 이내인 자	21.8
17	경상북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	경북 시군 청년예비창업 수료자 중 북부권 11개 시군의 우수 청년창업가를 지속적으로 관리 지원하여 지역의 대표적 청년기 업으로 육성	① 창업활동비 ② 창업교육, 컨설팅	도내 만 39세 이하의 창업 3년 미만 청년CEO	6.15
◇ 창업교육					
18	학생 창업유망팀 300	잠재력이 높은 전국의 학생 창업팀 300개를 선발하여, 성 숙도에 따른 체계적 교육멘 토링을 통해 스타트업으로 성 장할 수 있도록 지원	① 창업 기초교육 ② 팀 발당 등 단계별 창업교육 및 멘토링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단, 원격대학 소속 재학생의 경우 참여를 제한함)	16.0
19	대학 창업교육 체제 구축	전국 대학이 창업 친화적인 제 도 및 교육과정을 구축·운영함으 로써 창업을 희망하는 학내 구성 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 록, 우수대학(권역별 가점 대학) 의 교육자원 및 전문성을 공유 확산	① 대학 컨설팅 ② 교직원 지도역량 강화 연수 ③ 창업교육 콘텐츠 개발	2개 권역 각 1개 대학을 수행대학으로 선정	6.22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지원내용	지원대상	사업 규모 (억 원)
20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	이공계 대학원생 등 연구자 중심의 실험실 창업탐색팀 대상 국내외 실전형 창업교육 (I-Corps) 및 권역별 거점대학 통한 창업보육사업화 프로그램 제공	① 국내외 시장탐색 중심의 실전형 창업교육 보육 등	대학생, 대학원생, Post-Doc 등으로 구성된 (예비)실험실 창업팀	122.8
21	울산청년CEO 육성사업	예비창업자를 위한 체계적 지원으로 청년창업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① 창업교육 ② 창업활동비지원 ③ 창업공간제공, 컨설팅 등	(울산)예비창업자 및 1년 이내 창업기업 ※ 만18세~39세	10.0
22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	창의적인 아이템과 기술력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창업 전문 교육과 컨설팅 및 초기사업화 지원을 통한 성공적인 창업기업 육성	① 교육 ② 시제품 제작 ③ 홍보·마케팅 등	도내 만 19세~39세 이하	5.0
◇ 시설공간보육					
23	제조업 창업공간 토크팩토리 운영사업	제조업 및 기술창업기업들에 대한 안정적인 사업수행 공간 제공으로 창업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① 공간 제공 ② 마케팅 및 컨설팅 ③ 판로개척 지원	사업자등록 7년 미만의 제조업관련 (예비)청년창업기업	5.0
24	지식기술 청년창업 지원사업	지역 내 우수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인프라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창업활동과 일자리 창출 유도	① 인프라 제공 ② 입주기업 사업지원 ③ 행사 참가 지원 등	(울산)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지식·기술분야 창업기업 ※ 만18세~39세	1.6
25	세종 청년창업 챌린지랩 운영사업	세종시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 성장 지원 위한 창업기업의 제품·서비스 등 시장검증과 홍보를 위한 테스트 마켓 공간 운영	① 창업공간 제공 ② 마케팅, 멘토링 및 네트워킹 제공	세종시 (예비)청년창업자 및 5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	0.7
26	충남 창업마루나비 운영	충남 창업마루 나비의 공간을 활용한 투자유치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 스타트업 육성, 지역의 창업허브 역할 및 창업생태계 활성화	① 네트워킹 지원 ② 교육 및 공간제공 ③ 액셀러레이팅 등	충남도내 만 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	4.8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지원내용	지원대상	사업 규모 (억 원)
27	마을창고 활용 청년 창업가 양성사업	낯은 마을창고를 리모델링한 청년 창업공간을 기반으로 로 컬크리에이터를 발굴·육성 하 여 새로운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정착 유도	① 공간지원 등	만18세~만39세로 청년 (예비)창업가	3.45
◇ 멘토링·컨설팅					
28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사업	농식품 분야 벤처·창업기업 에서의 실습을 통해 청년 예 비창업자의 경영, 마케팅, 제 품기술 등 현장 실무지식 습 득 지원	① 현장실습 지원 (2~3개월) ② 인턴지원금 ③ 창업교육 및 멘토링 ④ 해외연수	만 39세 이하의 농식품 분야 청년 예비창업자(멘터) 또는 및 매출액 1억 원 이상의 농식품 분야 벤처·창업기업(멘토)	3.1
총 28개 사업, 1,447.22억 원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2021년 정부 창업지원사업」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유형은 사업화(17개), 시설·보육(5개), 창업교육(5개), 멘토링·컨설팅(1개)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예산 1,447억 원 중 사업화가 1,268.55억 원으로 87.7%를 차지하였으며, 멘토링·컨설팅(11%), 시설·보육(1.1%), 창업교육(0.2%) 순이었다.

<표 6> 청년창업 지원사업 유형

사업유형	사업화	시설·보육	멘토링·컨설팅	창업교육	총합
개수	17개	5개	1개	5개	28개
비율	60.7%	17.9%	3.6%	17.9%	100%
예산	1,268.55	15.55	160.02	3.1	1,447.22
비율	87.7%	1.1%	11%	0.2%	100%

2. 경기도 청년창업 지원정책 현황

위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중 경기도는 1개 사업을 지원하며,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프로젝트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 (사업개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보유자원 및 서울대학교 창업인프라 활용,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대학생 융합기술 스타트업 양성
- (모집분야) 차세대 융합기술분야* 및 기타 기술기반 창업 분야
 - * 지능형 헬스케어, 미래형 도시설계, 차세대 교통시스템
- (지원대상) 경기도 소재 대학(원)생 또는 경기도 거주 대학(원)생으로서, 경기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창업자
- (지원규모) 25팀(신규 20팀, 후속지원 5팀)
- (지원내용)

인프라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① 사업화 지원금 - 최대 5,000만원(차등지급) ② 창업공간 - 공동 창업공간(경기도 대학생 창업지원센터), 개별 창업공간(4개실)	① 융합기술 창업지도 - 융기원 연구진, 서울대 교수진 등 전문가 멘토 Pool 운영 - 단계별·분야별 2Track* 멘토링 운영 * 창업지도교수, 맞춤형 멘토링	① 창업교육 - 창업스쿨, 창업특강, 창업 캠프 ② 네트워킹 - 업계 전문가 초청 세미나 및 VC/AC 네트워킹 ③ 시장진출 지원 - 우수기업 IR피칭(데모데이) 및 시제품 전시회

- (창업지원인프라)

구분	경기도 대학생 창업지원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C동 2층)	우수기업 개별 창업공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13층)
시설현황	사무공간, 네트워킹 공간, 회의실 등	개별 입주 공간
이용대상	-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사업 선정팀 ※ 창업지원센터 소재지 사업자등록 지원 - 경기도 대학생 창업동아리 및 대학생 스타트업 ※ 연중수시 이용신청 가능(방문접수)	-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사업 선정팀 중 우수 2개 팀 ※ 신청자에 한하여 내부심사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의 통합공고를 통해 공모된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외에도, 경기도에서는 초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❶청년혁신창업기업 특례보증사업, 제품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❷청년기업 온라인 판로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청년혁신창업기업 특례보증〉

- (지원목적) 초저금리 자금지원을 통한 도내 창업가의 자립기반 강화
- (지원한도) 혁신형 창업기업-업체당 5억 원 이내, 벤처형 창업기업-업체당 3억 원 이내
- (지원대상) 대표자가 만 20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업력 7년 이내의 기업
 - * 혁신형 창업기업 및 벤처형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2-Track 지원
- (세부요건)

구분	요건내용
Track 1 (혁신형 창업기업)	①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등록(출원 포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포함) 보유기업 ② 부품·소재 전문 확인기업(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확인) ③ 신기술인증(NET,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확인) 보유기업 ④ 신제품인증(NEP, 국가기술표준연구원 확인) 보유기업 ⑤ 규제샌드박스 적용 대상으로 확정된 기업 ⑥ 창업경진대회 입상기업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정부, 도, 또는 시·군,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주관한 창업경진대회 입상기업
Track 2 (벤처형 창업기업)	① 창업지원기관 입주기업 : 도내 벤처센터,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캠퍼스, 창업보육센터 등 공공 지원기관 입주기업 ② 도 주관 창업 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기업 ③ 새로운 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동력기업 : 성장동력기업 지원*업종 영위기업 또는 전년대비 매출액 20%이상 증가기업 * 도 전략산업 및 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 뿌리산업 - 일자리창출기업 : 최근 1년간 신규고용창출기업(기존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한 경우에 한함)

〈경기도 청년기업 온라인 판로지원〉

- (사업목적) 도내 청년기업 제품 판로확대를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청년기업
* 청년기업 기준 : 대표자가 만 20세~39세(청년)인 기업
- (지원내용) 경기도 청년기업 상품에 대한 대형 온라인몰 입점 및 판매촉진 프로모션 지원
- (세부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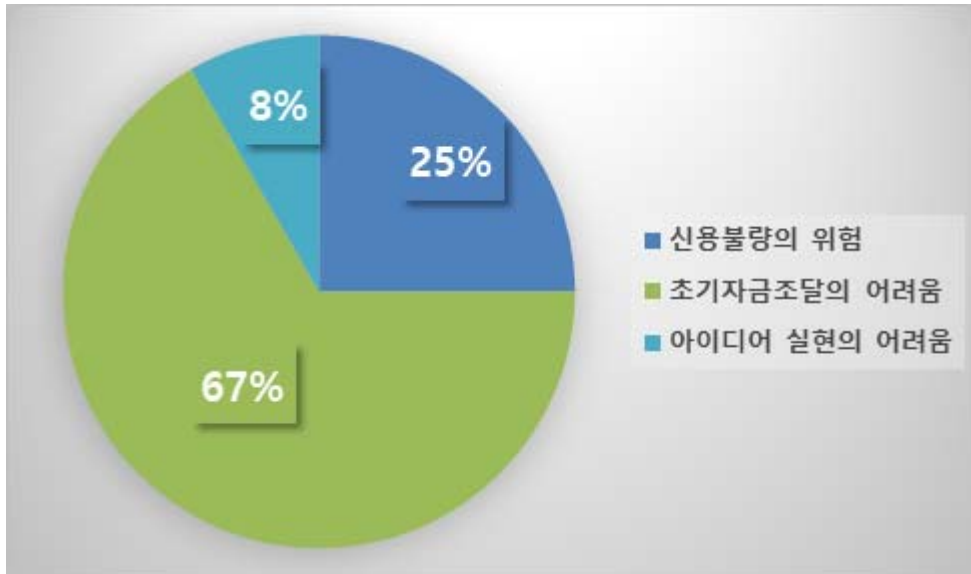
온라인몰 입점 지원	온라인 판매 제반활동 지원	광고, 기획전 및 판촉행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채널별 입점 진행 *대형유통채널 5개사 입점 및 행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등록, 판매, 수발주 정산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점 채널별 마케팅 구조 노출 및 쿠폰 행사 진행

3. 경기도 청년창업가 설문조사 및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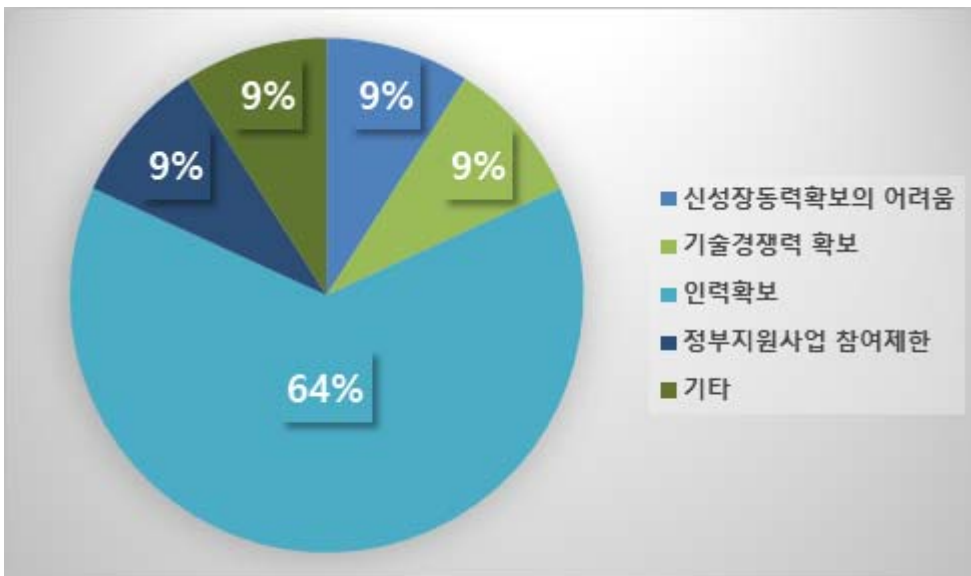
위처럼 기술 창업지원, 판로지원 및 자금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정책의 실효성 및 창업 시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청년창업 정책 수혜를 받은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창업 저해 요인, 애로사항 등 창업추진에 발생하는 문제 파악을 위한 문항을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고, 12명의 청년창업가들의 응답결과는 아래 그래프와 같다.

① 창업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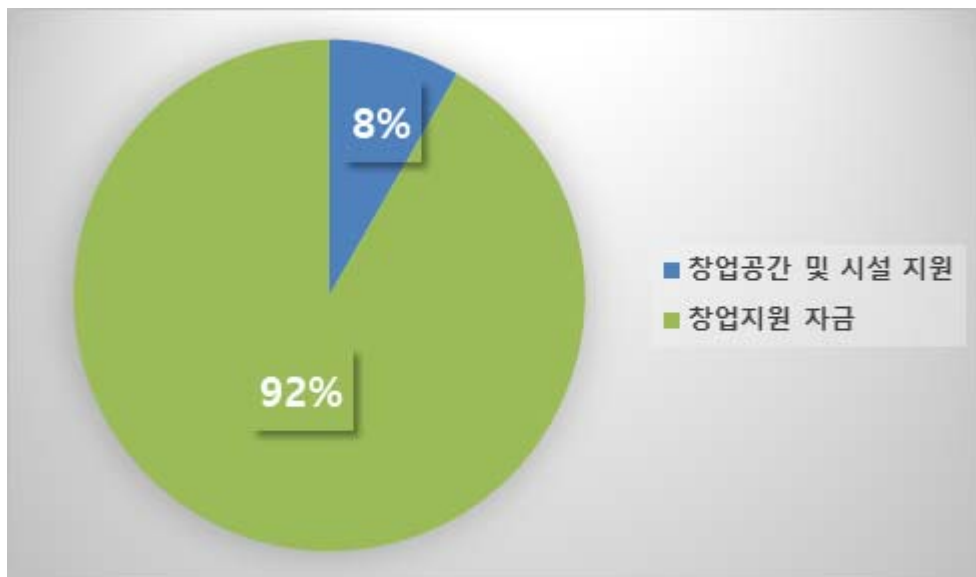


② 귀사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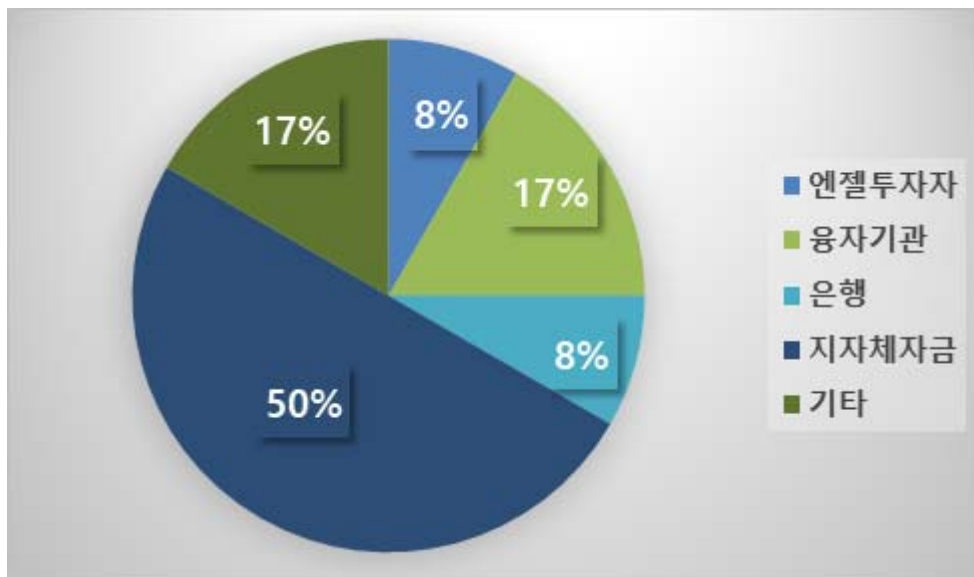


- ① 창업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② 귀사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③ 다음 중 창업초기 기업지원 프로그램 중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④ 귀사의 투자 및 자금 확보 원천은 무엇입니까?
- ⑤ 귀사의 투자유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⑥ 경기도에서 사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⑦ 기업의 경기도 정착에 필요한 지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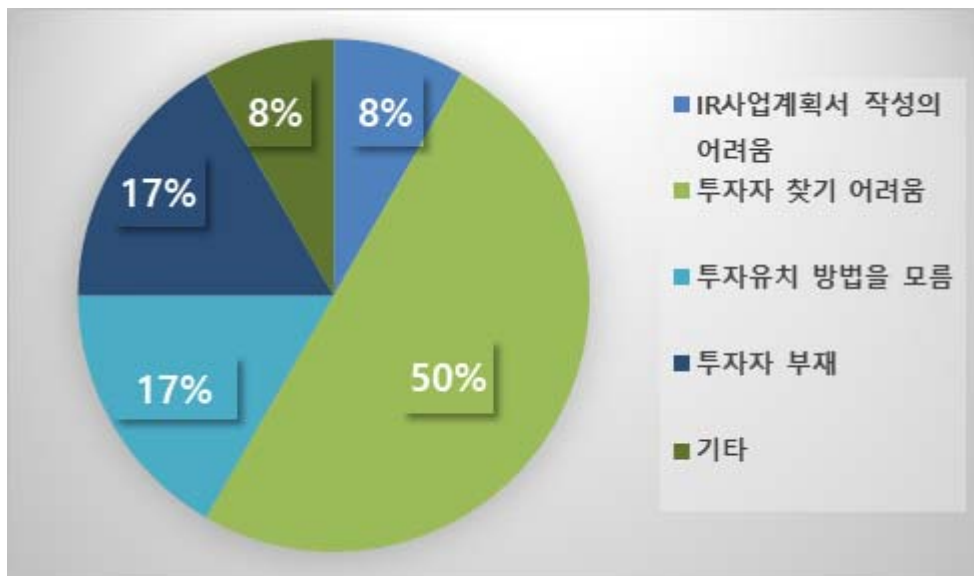
③ 다음 중 창업초기 기업지원 프로그램 중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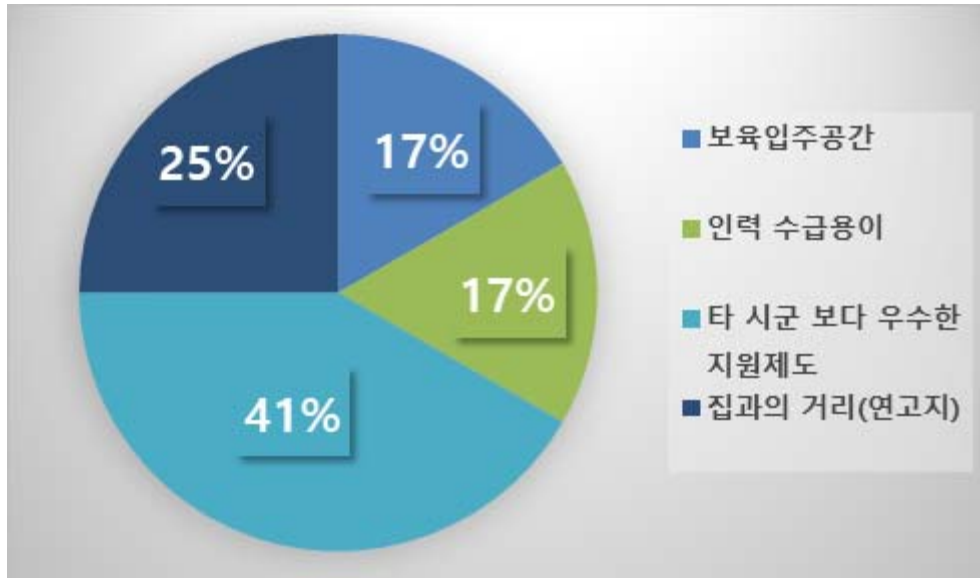
④ 귀사의 투자 및 자금 확보 원천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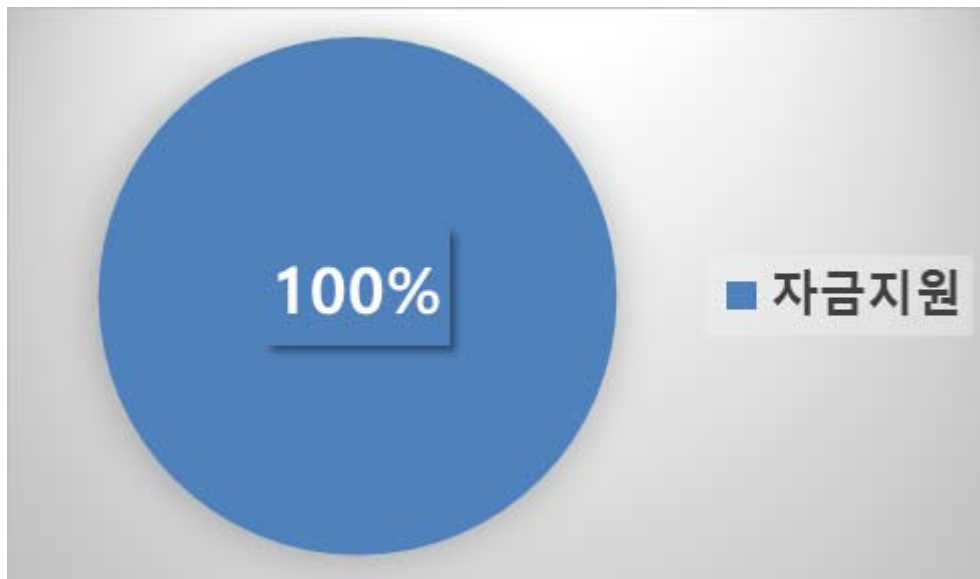
⑤ 귀사의 투자유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⑥ 경기도에서 사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⑦ 기업의 경기도 정착에 필요한 지원은?



창업 추진에 발생하는 주요한 애로사항은 창업자금 조달의 어려움(초기자금 조달의 어려움, 투자자 확보의 문제)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지자체의 자금을 통해서 창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창업을 시작하게 되면,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답변이 6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또한, 경기도에서 창업을 하는 이유로는 타 지역 대비 우수한 지원으로 꼽았으며, 기업의 경기도 정착에 필요한 요소를 자금지원으로 꼽으면서 창업가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금 및 시설 등 핵심제반에 대한 지원인 것을 짚어주었다.

나아가 청년 창업가들이 정책 수혜과정에서 겪는 실질적인 애로사항 등을 보다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창업정책 수혜청년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전에 개발된 큰 질문 문항들을 설계하고 그에 따라 질문하되, 인터뷰 대상자가 인터뷰 중에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게 진행하였다. 인터뷰 질문 문항들은 아래와 같다.

1. 경기도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사업을 수혜 받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습니까?
 - 1-1. 위 지원사업 관련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 1-2. 위 지원사업 관련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2. 경기도에서 사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경기도 외 정부 및 지자체에서 창업지원사업 수혜를 받았습니까?
 - 3-1. 위 지원사업 관련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 3-2. 위 지원사업 관련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4. 창업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5. 정부 창업정책에 대해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6. 창업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7. 어떤 점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8. 창업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입니까?
9. 앞으로의 계획이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인터뷰 대상자는 ‘경기도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사업’을 수혜 받은 청년창업가 5명으로, 창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업소속으로 인터뷰 의향이 있는 청년 창업가와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터뷰 대상자인 청년 창업가들이 정부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수혜를 받으며 느낀 애로사항을 도출했다. 그 결과, 주요한 애로사항으로 크게 ‘멘토링’, ‘투자유치’, ‘사업비 집행방식’, ‘인력확보’ 등이 도출됐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유치의 어려움이다. 투자자에게 사업 아이템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며, 스타트업 청년 대표로서 투자자에게 신뢰를 쌓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 기업의 상황(기업규모, 사업단계 등)에 잘 맞는 투자자를 만나기 어려우며 투자유치 방법을 알기 힘든 점을 언급했다.

둘째, 사업비 집행방식의 불편함이다. 현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대부분의 창업지원사업들은 기업이 가진 자체자금으로 선 집행하게 한 후, 후불로 사업비를 지급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과반수의 인터뷰 대상 청년창업가들이 사업비 초기자금이 없는 청년 창업기업들에게 매우 난처한 방식이라고 입을 모았다.

셋째,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멘토링 서비스도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 애로사항으로 손꼽혔다. 창업지원사업의 멘토링 서비스는 해당 지원기관의 전문가POOL 내에서 선정이 가능하거나 멘토링 서비스 금액이 적어 원하는 멘토에게 멘토링을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단순 강의식 내용, 긴 멘토링 간격, 광범위한 멘토링 범위 등으로 실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넷째, 인력확보의 어려움이다. 특히 개발자와 같은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데 시간을 오래 소요했다는 힘든 경험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초기 팀원들 대부분이 이직 후 팀원을 어떻게 구해야할지 몰라 사업체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청년 창업가도 있었다.

그 외 타 스타트업 기업들과 네트워킹 기회 부족, 창업 지원 심사결과에 대한 피드백 미비 등의 의견이 있었다.

<표 7> 경기도 청년창업가 인터뷰 결과

구분	주요 애로사항
투자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에게 사업아이템을 보여줄 기회가 적음 • 투자자에게 신뢰를 쌓기 어려움 • 현 기업 상황과 잘 맞는 투자자를 만나기 어려움
사업비 집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자금으로 선 집행 후 사업비를 돌려받는 형식이 사용에 불편함 - 위의 방식은 초기자금이 없는 사업체의 경우 사용이 곤란함
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하는 멘토에게 멘토링 받기 어려움 • 회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멘토링 필요 • 광범위한 멘토링 분야 범위 • 기술적 부분 지원 필요
인력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팀원들 이직 후 인력 확보의 어려움 • 인력 채용 홍보 미비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스타트업 기업들과 네트워킹 기회 부족 • 창업 지원 심사결과에 대한 피드백 미비

4. 국외 청년창업 지원정책 사례 및 시사점

1) 미국

미국은 1953년 중소기업청(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창업·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미국 전역에 10개의 광역본부, 68개의 지역본부를 설치하여 현장을 지원하였고, ①자금지원, ②수출, ③연방정부 조달 참여, ④기술개발, ⑤기업환경 조성, ⑥경영위기 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00년대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이후 2011년 오바마 정부는 ‘스타트업 아메리카’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 트럼프 정부는 미국혁신국을 신설하여 스타트업을 지원하였다.

스타트업 아메리카는 미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성장 창업기업의 성장 자금 지원,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표 8〉 스타트업 아메리카 정책의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자본접근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pact Investment Fund(10억 달러) 조성 • Early-Stage Innovation Fund(10억 달러) 조성 • 스타트업 자본 확대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허용 등
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청, 에너지부 등은 공동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청정에너지 스타트업에 경험 있는 멘토 연결 • 재향군인들의 고성장 사업을 위한 인큐베이터 신설 • 대학교에 엔지니어링에 관한 혁신과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한 센터 건립
규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심사 단축을 위한 패스트트랙 특허처리 제도 신설 • 국내에 스타트업을 시작하려는 외국인에게 비자 제공
혁신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시장으로 이전하도록 지원 • 과학자들이 스타트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Innovation corps 프로그램 신설

출처 : 백악관, KDB미래전략연구소

위와 같이 공공 부문에서 ①자본접근성 확대, ②멘토링, ③규제 개선, ④혁신 가속화를 추진하였으며, 민간 부문에서는 ①창업생태계 조성, ②차세대 창업가 연결, ③멘토와 창업가 연결, ④대기업과 창업가 연결, ⑤혁신 가속화를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신생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위해 신생벤처지원법(JOBS, Jump Start Our Business Act)을 추진하였으며, ①신생기업에 대한 자본시장의 개방, ②고용창출업체의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 상승, ③크라우드 펀딩 관련 내용, ④소기업의 자본형성, ⑤비공개 기업의 유연성 및 성장성, ⑥자본의 확대, ⑦법규 보완의 7가지 주요한 내용으로 추진하였다.

미국 연방청의 America's Seed Fund 프로그램 선발 기업인 GreenTechnologies LLC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다. 펀딩을 통해 리서치 및 개발 등에 집중하여 GreenEdge라는 브랜드의 친환경 비료제품을 생산했고, 이후 비료 시장의 디스트리뷰션 파트너와 조경 관련 공급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상업화를 실현했다. 기술기반의 기업들에게 부족할 수 있는 기업가적(사업적) 워크숍, 관련 정보 제공, 전문가 연계 등 다각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창업 에코시스템 형성으로 전방위적 지원을 받은 것이다.

이처럼 美정부는 창업을 통한 기업가 정신 교육과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정부와 민간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민관협력식 창업지원기구를 운영함으로써 관련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와 엑셀러레이터들의 정확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부분에 시사점이 있다.

2) 독일

독일은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창업이 감소하였고, 2019년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창업건수가 다시 급감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8년 말 연방경제에너지부에서 기업가정신 제고와 창업 환경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창업육성프로그램을 발표하였으며, 10가지 분야별 지원 및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성공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창업육성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①기업가 정신 및 창업의지 제고, ②창업환경 개선, ③기업승계 육성, ④여성창업 장려, ⑤자금지원 프로그램 확대, ⑥벤처자본시장 육성, ⑦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네트워킹 지원, ⑧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지원, ⑨이민자, 난민을 위한 창업 멘토링, ⑩사회적 기업 창업지원의 10가지 주요한 내용으로 추진하였다. 각 프로그램의 추진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9〉 독일의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주요내용 >

구 분	주요내용
기업가 정신 및 창업의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들의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산학연 연계 프로젝트 진행 • 대학, 연구소 스핀오프 창업 지원프로그램(EXIST) 예산 추가증액 • 주/연방 단위별로 창업 경진대회 및 교류행사 개최, 매년 개최 중인 창업주간행사 활성화 • 신규창업자 경영노하우 전수 프로그램을 통한 실패방지 지원
창업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준비 및 비용조달을 위한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 불요불급한 행정낭비를 없애고 창업절차 온라인화 추진 • 실험실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연구결과 사업화 프로젝트 추진 •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비용 50% 정부지원

구 분	주요내용
기업승계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승계 매칭을 위한 온라인 장터 구축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전국 단위 행사 개최
여성창업 장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경영자들이 성공스토리를 공유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 추진 여성창업자 포탈 지원 강화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례적인 행사 기획
자금지원 프로그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자본(은행, 투자사, 산업협회 등)의 창업지원 확대를 위한 대화채널 구축 ERP(European Recovery Program) 창업자금 확대 취약계층, 이민자의 창업지원을 위한 마이크로 크레딧, 마이크로메자닌 펀드 구축 및 확대 창업보증기관의 지원 한도 확대
벤처자본시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벤처캐피털 조성 하이테크 분야 지원을 위한 Tech Growth Fund, High-Tech Grunderfonds 조성 크라운드펀딩 절차 간소화 EIF(European Investments Fund), ERP(European Recovery Program) 펀드 활용 민간자본 벤처시장에 유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네트워킹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art-up-night!', 'Start-up meets Mittelstand' 등 네트워킹 행사 정례화 추진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Digital Hub Initiative를 본보기로 기업, 스타트업, 투자자를 연결하는 창업허브 구축 에너지 분야 스타트업과 정부 출연 연구소들 연계지원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 스타트업의 미국, 아시아 진출 지원 엑셀러레이팅 사업 지원 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 연계, 외국 청년창업자의 독일진출 유도 이스라엘, 인도와 스타트업 교환프로그램 추진
이민자, 난민을 위한 창업 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민자, 난민 대상으로 창업 관련 정보, 코칭,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인 정착 지원
사회적 기업 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 지원프로그램 추진 시 사회적 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및 세부내용 조율

출처 :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독일의 창업정책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창업의 영향력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어, 창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며, 타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벤처투자 부문에 대해 공적자금을 동원, 민간시장의 투자까지 유도하여 창업생태계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3) 일본

일본에서는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제도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①청년층을 위한 기업가 교육 사업, ②Japan Challenge Gate 2021, ③대학發 벤처 육성, ④J-Startup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여성·청년·시니어 창업가 자금 지원을 통해 정부에서 직접 재정적 지원을 추진하였다.

일본재흥전략(2016년) 발표 이후,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창업 활성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특히 청년창업 지원에 있어 개인·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을 주요 과제로 운영하였다. 일본의 경우, 창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 전체 스타트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창출하는 부분에 지원을 투입하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4) 스웨덴

스웨덴은 오랜 시간 동안 혁신·기업가정신을 육성해 왔으며, 인구수에 비해 많은 유니콘 기업을 보유, 탄탄한 사회적 안전망, 정부지원에 대한 접근성 용이, 작은 내수 시장으로 인한 수출 집중화 등의 요인으로 창업을 기회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정착되어 있다. 주요 창업지원정책으로 ①Almi, ②Vinnova, ③Startup Sweden, ④Ignite Sweden, ⑤Business Sweden이 있으며, 스웨덴의 성공사례로는 Spotify, Klarna, iZettle 등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다.

IV 경기도 청년창업 지원정책 개선방안

1.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경기도를 포함한 국내의 2021년도 청년창업 정책 지원현황을 파악한 후, 경기도 청년창업 정책 지원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창업과정 및 청년 창업정책을 수혜하며 발생한 애로사항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앞서 도출한 애로사항과 해외 청년창업 정책 현황 및 성공사례 시사점을 바탕으로 현재 경기도 청년창업 지원사업 개선방안을 도출해내었다.

먼저 국내 청년창업 정책 지원현황을 파악한 결과, 2021년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창업 지원 사업은 총 28개로 사업 유형은 사업화지원(17개), 시설·보육(5개), 창업교육(5개), 멘토링·컨설팅(1개)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경기도는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인프라, 멘토링,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통합공고를 통해 공모된 사업 외에도 경기도에서는 초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혁신창업기업 특례보증사업, 제품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청년기업 온라인 판로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조사한 경기도 청년창업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2020년도 경기도 청년창업 정책 수혜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먼저 설문조사 결과, 창업 추진에 발생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창업자금 조달의 어려움(초기자금 조달의 어려움, 투자자 확보의 문제)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 과정에서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답변이 6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인터뷰 결과 과반수 이상 인터뷰 대상자는 창업 시 겪는 애로사항으로 투자유치와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꼽

있고, 창업정책 수혜 관련 애로사항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멘토링 서비스, 사업비 집행방식의 불편함을 언급했다.

위의 결과를 통해 경기도에서 멘토링, 엑셀러레이팅, 초저금리 자금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청년창업 정책수혜자들은 창업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었고, 멘토링 서비스와 사업비 집행방식에 불만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애로사항을 개선한 경기도 청년창업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 해외 청년창업 정책 우수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의 경우 정부가 민관협력식 창업지원기구를 운영하고 독일은 민간시장의 투자까지 유도하여 창업 생태계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제언할 수 있었다.

2. 개선방안 및 제언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청년 창업가가 창업 후 사업체 운영 및 창업정책 수혜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제언한다.

1) 투자유치 기회 확대

대부분의 청년 창업가들은 사회 경험이 부족하여 사업 초기 창업자금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므로, 투자유치 기회가 사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민간 투자위주의 스타트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청년 창업가들이 VC/AC와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만남의 장을 제공 해줘야한다.

앞서 독일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벤처투자 부문에 대해 공적자금 동원, 민간시장의 투자까지 유도한다면 창업 생태계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간투자 위주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수요자와 공급자가 잘 매칭될 수 있는 투자 플랫폼 육성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고성장 창업기원 지원을 위해 비영리재단을 조직하여 청년창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한다면,

스타트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기도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데모데이를 개최하여 현직 VC/AC에게 1:1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투자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거나 투자 방법을 모르는 청년창업가들에게 투자유치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2) 인력확보 인프라 마련

경기도 청년창업가 대상 인터뷰 결과 인력확보 어려움의 원인은 초기 창업팀원들의 이직 후 적절한 채용 방법을 몰라서, 채용 공고 시 기업의 신뢰도나 홍보가 부족해서 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수요자(청년창업기업)와 공급자(구직자) 매칭 스타트업 전문 인력 플랫폼을 마련하고, 신생 창업기업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만약 정부 및 지자체 기관 차원에서 청년창업 기업 간 합동채용 공고를 지원한다면 청년창업기업의 채용 홍보 및 신뢰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멘토링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앞서 과반수의 인터뷰 대상자들이 멘토링 프로그램이 실무적 도움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많은 창업지원 기관들은 기관이 가진 멘토POOL만을 이용하거나, 멘토 지원비용이 원하는 멘토를 섭외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것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지원 기관들은 강의 형식의 멘토링을 지양하고 실제 창업 경험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멘토POOL을 갖춰야 한다. 사업 지원금 사용방법, 창업 아이디어 실현 중 기술적으로 막히는 부분 등 실무에서 겪는 어려움을 상시 1:1로 피드백 해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멘토POOL을 마련하고 창업기업에 매칭 해줘야 한다. 또한, 각 기업이 갖고 있는 특성(업종, 사업단계 등)에 맞게 지원 가능하도록 현재의 큰 범주보다 디테일한 범주로 나누어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멘토링 지원금 관련해서 현재 대부분 지원사업은 한 팀이 한명의 멘토만을 초빙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금이 모자라 원하는 멘토를 초빙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한다. 만약 여러 팀의 지원금을 합쳐 멘토를 초빙해 함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4) 사업비 집행 방식 변경필요

현재 대부분의 정부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의 경우, 창업기업의 자체 자금으로 선 집행 후 사업비를 돌려받는 형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형식의 사업비 집행은 청년 창업기업의 경우 초기 자금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외주용역비 지급 시 선금을 지급해야하는 등 실무적인 상황에서 난처함을 겪게 한다. 따라서 현재 사업비 집행 방식에 변경이 필요하다.

변경방안은 다음과 같다. 창업지원 사업비 지급, 집행, 정산 단계까지 사업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설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비관리 시스템으로 사업시작 전 일괄 지급 하여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하여 사용 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적용한다면 초기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창업가의 사업비 사용이 한결 수월할 것이다.

별첨

2020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 수혜청년 인터뷰 전문

기업명	단백질군단		
기술분야	바이오헬스케어	인터뷰이	정주용 대표
<p>▶ 창업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p> <p>농학을 전공하며 연구분야로 진로를 선택하고 싶었고, 가지고있는 기술적 지식(실험 경험 등)으로 수익을 내보면 어떨까 생각하게 됐다.</p> <p>▶ 창업 아이템의 어떤 부분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했는지</p> <p>파지 농산물에서 성분을 추출하여 맞춤형 화장품을 제작해 판매한다. 파지 농산물은 일반 농산물 가격의 약 25%이기 때문에 원재료 값이 싼데, 이부분에 사업성이 있다. 또한, 추출과정에서 용매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작비용을 낮출 수 있다.</p> <p>▶ 경기도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을 수혜 받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는지</p> <p>자금지원을 받아 연구비용(단백질 분석 의뢰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p> <p>- 위 지원사업 관련 애로사항이 있었는지</p> <p>창업 지원을 받을 때, 선정팀을 뽑은 후 중간심사를 해서 등급을 받는다. 등급선정 이 유 및 피드백이 대강 적혀있어서 아쉬웠다. 강점 및 단점 등 피드백을 자세히 해준다면, 활용 가능해 좋을 것 같았다.</p> <p>우리 사업체의 경우, 제품 개발 단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했었기</p>			

때문에 매달 제출해야하는 보고서 작성이 힘들었다. 연구과정에서 성과를 한달마다 보여주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분기별로 작성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멘토링 지원 부분에서도 원하는 전문가를 초빙하기에는 팀당 20만원이라는 지원 금액이 모자라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 위 지원사업 관련 좋았던 점은?

창업지원 사업 선정 후 특강, 멘토링을 받을 때 성과를 많이 낸 스타트업 대표님이 오셨다. IR 자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그때부터 IR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자료로 실적을 많이 낼 수 있었다.

▶ 경기도에서 사업하는 이유는?

경기도 창업 지원사업이 타 지역보다 지원 규모가 크고, 신청 자격이 대학원생까지 폭넓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 경기도 외 정부 및 지자체에서 창업지원사업 수혜를 받았는지

BEF 사회적기업 공모전, 부산대학교 기술지주, 경남 공유경제 아이디어 공모전 등에서 자금지원을 받았다.

▶ 창업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투자유치 부분이 힘들었다. VC에게 아이템을 보여줄 기회를 갖는 것조차 어렵고, 투자과정에서 신뢰를 쌓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사업계획서 작성 부분에서도 컨설팅 비용이 너무 비싸 자문없이 작성하다보니 어려움이 있었다.

▶ 정부의 청년 창업정책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창업 지원 사업 서류합격 기회를 늘렸으면 한다.

신청팀은 몇 백팀인데, 서류합격팀은 20팀정도 가량이다. 발표 심사를 여러 번 하더라도, 서류 합격자를 늘려서 모든 아이템을 가급적 봐줬으면 한다.

멘토링 지원금액 부분에서도 건의사항이 있다. 멘토링 받고싶은 사람을 초빙하기에는 팀당 20만원 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러팀 지원금을 합쳐 같이 멘토를 초빙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또, 벤처 캐피탈을 초청하여 IR 자료를 봐줄 수 있게 하는 등 지원금 외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해줬으면 함.

▶ **창업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테크위크라는 초기창업 아이템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아이템이 좋았으나 PT를 잘 못 해서 수상을 못한 팀이 있었다. 수상은 못했지만, 벤처 캐피탈이 좋게 보고 컨택을 해서 더 좋은 성과를 얻어가는 것이 인상깊었다.

▶ **앞으로의 계획이나 비전은?**

축산, 동물 세포쪽 성분 추출하시는 분들을 채용해서 동물과 식물을 아울러 추출해 판매할 수 있는 아이템을 구상해보고싶다.

기업명	답빌드주식회사		ArchDica
기술분야	AI/빅데이터	인터뷰이	한상국 대표
<p>▶ 창업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p> <p>대학교때부터 다른분야 사업을 해왔고, 기술적 창업을 하고싶어 갖고있는 실무경험과 기술적 지식을 결합하여 창업을 하게됐다.</p> <p>▶ 창업 아이템의 어떤 부분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했는지</p> <p>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자신의 공간을 촬영하여 다양한 제품을 가상으로 변환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저장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업체가 입찰하는 방식의 사업모델이다. 소비자가 선택한 자재, 제품, 재질 정보를 업체에게 제공하며 동시에 해당 자재를 ‘아키디카 플랫폼’에서 구매하도록 유도한다.</p> <p>▶ 경기도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을 수혜 받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는지</p> <p>자금지원을 받아 시제품 제작비, 서버구동 서비스 비를 지원받았고, 팀원들에게 제공할 노트북 등 장비대여를 지원받았다.</p> <p>- 위 지원사업 관련 애로사항이 있었는지</p> <p>인건비 집행 금액과 기간 제약 등 인건비 집행에 제약이 많아 힘들었다. 예를들어, 먼저 자금집행을 한 후 자금을 받는 형식으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경우 초기자금이 없는 기업의 경우 초기에 자금집행이 어렵다. 또한, 외주용역비를 낼 때 선금을 지급해야하는 등 실무적인 부분이 있는데, 정부지원금 사용 규제는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 애로사항이 있었다.</p> <p>또한, 멘토링 지원이 한 업체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강의 형식이다. 모든 업체에 같은 사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았다.</p>			

▶ 경기도에서 사업하는 이유는?

판교 제이 테크노벨리에서 공간지원을 받았다. 450개씩 되는 많은 업체가 입주해있어 네트워킹이 활발해 이점이 있었다.

▶ 창업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먼저 경력이 없어 알기 어려운 부분을 알아가는 것이 힘들었다. 창업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는 부분(직원 원천징수, 내일채움공제 등)을 대학생(청년) 창업가들은 아예 모르기 때문에 타 업체에 물어보는 방법 등으로 해결해 사업에 딜레이가 많이 발생했다.

현재 인원이 5인이 넘는 업체다보니 지원사업 신청에 애매한 위치에 있다. 현재 기업이 완전 초기단계가 아니라 초기단계를 위한 액셀러레이팅에도 참가를 못한다.

투자유치 부분에서도 현재 기업 위치와 잘맞는 AC나 VC를 만나기가 어려워 고생하고 있다.

▶ 정부의 청년 창업정책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멘토링 지원 관련하여 제안하고 싶다. 창업성공 패키지, 초기창업 패키지 등 사업을 성장단계까지 올릴 수 있는 선정 대비를 위한 멘토링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문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교수님을 붙여주는 것처럼 회사 자체의 역량을 높힐 수 있는 멘토링이 필요하다.

또, 현재는 멘토링 범주가 인사, 노무, 세무회계 등 큰 범주로 되어있다. 좀더 디테일한 범주를 갖고 실무적인 부분(사업화 지원금 사용방법 등)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사업계획서 피드백의 경우도 사업체마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체와 멘토 1:1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한다.

사업비 규제 부분에서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선 자금집행 후 사업비를 받는 형태의 규제를 개선 해줬으면 하고, 사업비 대출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공간지원 관련해서, 입주조건에 많은 제약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양재 허브 같은 경우, 연구소 등록을 하지 않아도 공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좋았다. 정보통신산업

진흥원이 운영하는 ‘하이테크 캠퍼스’에서 런치 프로그램을 주관해주는 등 타 업체와 네트워킹 시간을 마련해주는 점도 좋았다. 실제로 관계가 발전되어 현재 한 공사 사내 벤처와 함께 일하고 있다.

이처럼 타 업체와 네트워킹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창업대회나 공모전을 통해 좋은 업체들을 많이 알게 되어 함께 MD서류를 써보거나 정부지원 과제를 지원해보는 등 경험할 수 있었고, 협력사가 되어 함께 발주를 넣어주는 등 배울 수 있는게 많았다. 운이 좋아 좋은 업체들과 협업할 수 있었지만, 인연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살아남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처럼 업체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인력확보 관련해서도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우리 회사의 경우, 인공지능 개발자를 뽑아야하는데 소규모 스타트업이 단독공고를 내면 사람들이 많이 봐주지 않을 뿐더러 신뢰성의 문제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운영공간에서 여러 업체와 함께 광고도 추가하여 공고를 낸게 많은 도움이 됐다. 지원자 입장에서는 망하지 않는 회사인가가 중요한 부분인데, ‘누군가 공정한 스타트업’이라는 느낌으로 공고를 내다보니 도움이 된 것 같다.


AI 양재 허브같은 경우, 스타트업과 교육기관을 연결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교육 수료 자리에서 스타트업을 불러 매칭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당시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잘 몰라서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프로그램도 인력확보에 많은 도움이 된다.

▶ 창업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사실 좋았던 기억이 거의 없을 정도로 힘든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처음 R&D사업을 따기 위해 3개월간 밤을 샜는데, 합격했을 때 짜릿함이 기억에 남는다.

▶ 앞으로의 계획이나 비전은?

다음달 중반(‘21.11)에 현재 개발하는 서비스 런칭을 목표로 하고 있고, 투자유치 받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기업명	쉐프홈		
기술분야	O2O 서비스	인터뷰이	이건우 대표
<p>▶ 창업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p> <p>전공분야인 생명 분야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을 어떻게 연결할까 생각하다 사업 아이템을 생각해내게 됐다.</p> <p>▶ 창업 아이템의 어떤 부분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했는지</p> <p>일반 배달플랫폼은 음식을 빠르게 배달하는데 중점을 두지만, 이 서비스는 음식 퀄리티를 우리 국민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해주기 때문에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한다.</p> <p>▶ 경기도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을 수혜 받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는지</p> <p>자금지원을 받아 번리사를 통해 아이디어를 특허화하는 부분에 도움을 받았다.</p> <p>- 위 지원사업 관련 애로사항이 있었는지</p> <p>창업 지원을 받을 때, 선정 중간심사 후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등급선정 이유를 자세히 알 수 없어서 답답함이 있었다.</p> <p>▶ 경기도에서 사업하는 이유는?</p> <p>경기도 창업 지원사업이 타 지역보다 지원 규모가 크고, 신청 자격이 대학원생까지 폭넓게 주어졌기 때문이다.</p> <p>▶ 경기도 외 정부 및 지자체에서 창업지원사업 수혜를 받았는지</p> <p>데이터 바우처 예비창업 패키지, 국민카드에서 마케팅 지원 등을 받았다.</p> <p>- 지원을 받았다면, 위 지원사업 관련 애로사항이 있었는지</p> <p>서류 업무를 건바이 건으로 처리해야 하다보니 행정적으로 부담이 많이 됐다. 밖에서 영업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어야만 하는 시간이 많았다.</p>			

▶ 창업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실무적인 도움을 받기가 힘들었다. IT 지식이 전무해서 실무 지식과 가이드가 필요했는데 그러기에는 멘토풀이 많지 않았다.

▶ 정부의 청년 창업정책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위에서 언급한 실무적 도움을 받기위해서, 스타트업 운영을 실제로 해보거나 현재 운영중인 실무지식을 많이 가지신 멘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학력에 많은 제한을 두지않고 투자유치 경험같은 실무지식을 가지신 멘토님들에게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


창업 아이템을 평가할 때 사업화 가능성, 확정성, 시장성들이 높은 사업제품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단순 서류를 통한 평가로 이루어질 경우, 실무에 강하지만 서류 업무에 약한 대표님들이 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

▶ 창업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아내서 팀원들에게 전달하고, 함께 축하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 앞으로의 계획이나 비전은?

현재 사업을 보완하여 다시 런칭할 계획이다. 더 큰 투자를 따내는 것이 목표다.

기업명	워터리(Wattery)		
기술분야	플랫폼비즈니스	인터뷰이	황진영 대표
<p>▶ 창업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p> <p>불편함을 못 참는 성격이다보니, 불편함을 느낀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하게됐다.</p> <p>▶ 창업 아이템의 어떤 부분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했는지</p> <p>타사 대비 소량으로 판매해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 후 홈카페 이용 주 고객층에게 만족도 높은 AI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p> <p>▶ 경기도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을 수혜 받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는지 자금지원을 받았다.</p> <p>- 위 지원사업 관련 애로사항이 있었는지</p> <p>멘토링 부분에서 아쉬운점이 있었다. 큰 범주 중심으로 멘토링을 하다보니 우리 회사 분야에 딱맞는 멘토를 배정받기 어려웠다. 또, 1:1로 멘토링을 해주긴 하지만 한달에 한 번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실무적인 부분은 도움받지 못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p> <p>- 위 지원사업 관련 좋았던 점은?</p> <p>창업지원 사업 선정 후 특강, 멘토링을 받을 때 성과를 많이 낸 스타트업 대표님이 오셨다. IR 자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그때부터 IR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자료로 실적을 많이 낼 수 있었다.</p> <p>▶ 경기도에서 사업하는 이유는?</p> <p>경기도 지역 학교를 재학중이어서 경기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생각했다.</p>			

▶ 경기도 외 정부 및 지자체에서 창업지원사업 수혜를 받았는지

BEF 사회적기업 공모전, 부산대학교 기술지주, 경남 공유경제 아이디어 공모전 등에서 자금지원을 받았다.

- 지원을 받았다면, 위 지원사업 관련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 지원을 받았다면, 위 지원사업 관련 좋았던 점은?

▶ 창업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기술개발과정에서 기술적인 요소가 막히는 부분이 생겨 힘들었다.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자체적으로만 고민하다보니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예를 들어 우리 사업의 경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결시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아이디어다. 이 연동 부분에서 하드웨어의 센서를 소프트웨어가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해당문제 해결을 위해 내부회의가 길어졌던 경험이 있다.

현재는 창업 초기 멤버가 다 나간상태고, 팀원을 구해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정부의 청년 창업정책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위에서 언급했던 불편사항인데, 자금지원 방식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초기에 어느정도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주고 진행한다면 추진력 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멘토풀이 다양했으면 좋겠다. 지원받았던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명의 멘토가 멘토링을 해줬는데, 다양한 분야를 물어볼 수 있도록 여러명의 멘토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

제품개발 후 상용화, 수익화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필요하다. 보통 대표들은 투자회사를 찾아다니며 자금을 융통하는데 VC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 창업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어렸을 때부터 창업을 꿈꿔와서 아이디어를 수첩에 많이 적어놨다. 적어놨던 아이디어를 다른 대기업 등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을 보면 '자본만 있었으면..'이라는 생각을 하며 자주 아쉬워한 경험이 많다.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공감할 것 같다.

▶ 앞으로의 계획이나 비전은?

현재는 해당 사업체를 운영하지 못하고있는데, 팀원을 모을 기회가있다면 다시 사업체를 이끌어가고싶다.

기업명	애틱디자인그룹		ATDG
기술분야	스마트제조	인터뷰이	김상원 대표
<p>▶ 창업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p> <p>전공이 건축분야인데, 건축이 생활에 더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p> <p>▶ 창업 아이템의 어떤 부분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했는지</p> <p>건축은 대부분 큰 규모인데 작은 단위 건축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조립 및 분해가 용이한 전시 모듈을 통해 다양한 공간에 적용 가능한 것이 핵심이다.</p> <p>▶ 경기도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을 수혜 받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는지</p> <p>경영이나 회계부분에서 멘토의 도움을 받았다.</p> <p>- 위 지원사업 관련 애로사항이 있었는지</p> <p>코로나로 인해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아쉬웠다.</p> <p>- 위 지원사업 관련 좋았던 점은?</p> <p>다행히 필요한 멘토와 매칭이 잘되어 만족스러웠다.</p> <p>▶ 경기도에서 사업하는 이유는?</p> <p>경기도에 연고지가 있고,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까워 이점이있다. 또한, 지원사업들이 많다.</p> <p>▶ 경기도 외 정부 및 지자체에서 창업지원사업 수혜를 받았는지</p> <p>기술혁신형 지원 사업, 관광공사 지원금 수혜, 비대면 지원 사업, 경기창조혁신센터 공간지원 등 도움을 받았다.</p>			

- 지원을 받았다면, 위 지원사업 관련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기간이 너무 짧은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결론을 빠르게 내버려야해서 힘든 부분이 있다.

업체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주도해줬더라면 콜라보레이션 기회도 많았을텐데 이 부분은 아쉽다.

- 지원을 받았다면, 위 지원사업 관련 좋았던 점은?

경기창조혁신센터에 입주했을 때 다른 스타트업들과 함께 입주해있으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생동감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 창업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기술력을 갖고있는 것과 기술력을 이용해 사업을 진행시키는 건 다른 부분이다. 고객을 만나는 방법을 몰라서 처음에 어려움이 많았다. 고객과 만날 수 있는 인프라 마련이 됐으면 한다.

▶ 정부의 청년 창업정책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단계적으로 잘 성장하고있는 사업체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 창업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공간기반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다보니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을 많이 받았고, 그 순간들이 가장 기억에 각인된다.

▶ 앞으로의 계획이나 비전은?

현재는 도시재생적, 환경적 부분들도 함께 추구하려고 한다. 따라서 폐자재 활용 가능성까지 검토하고있는 상황이다. 비대면 상황 속에 오프라인에서 도시재생적, 환경적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지속적으로 나아가려한다.

참고문헌

- 김태환(2017), “청년창업 지원정책분석을 통한 창업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
- 김도연, 김연배, 송창현, “창업가의 배태조직과 창업경험이 형성하는 창업기업의 핵심경
영자원에 관한 연구: 한국의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중심으로”, 서울대
- “청년창업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스타트업투데이 보도자료(2020.2.11.)
- 배영임 외(2015). “경기도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 서대훈(2019), “주요국의 스타트업(Startup) 지원방식과 시사점”, KDB미래전략연구소.
- “KOSME 글로벌 동향 브리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021)
- 성영조 외(2016). “경기도 스타트업의 성장 생태계 구축 방안”, 경기연구원.
- 양현봉(2018), “창업정책의 추진 실태와 실효성 제고방안”, KIET
- “청년창업의 실태와 문제점”, 명대신문 보도자료(2021.03.15.)
- 최세경, 광규태(2017). “청년창업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역할제고 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